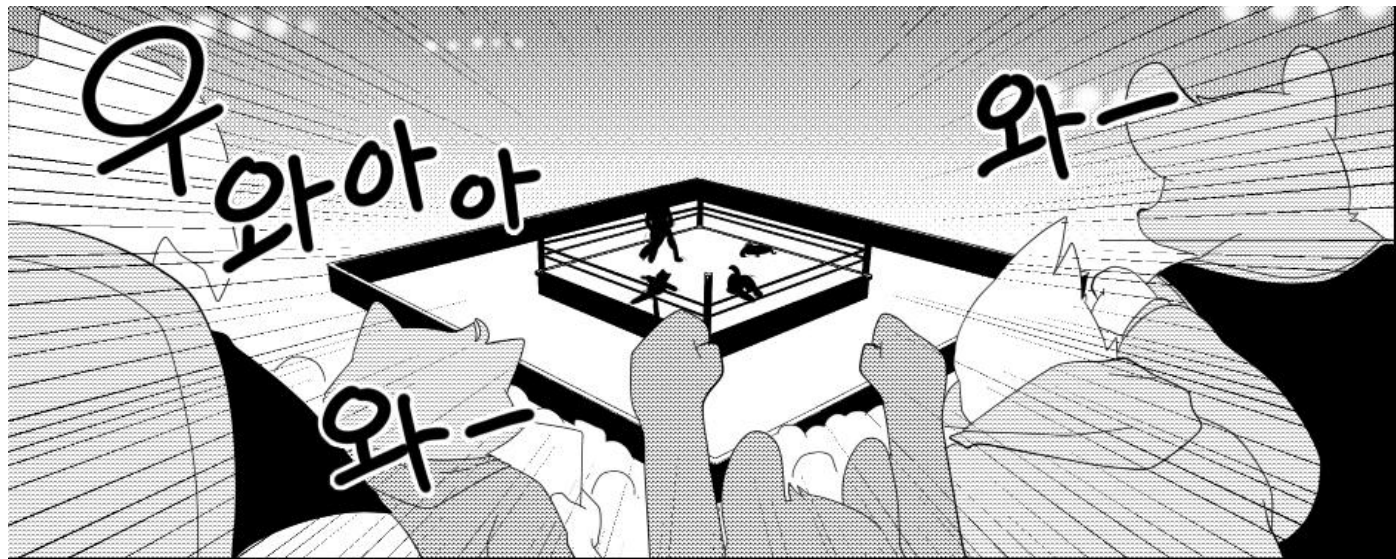


방황하는 푸른 탐험가 제3화



# 킬러웨이일과 나이트라이트







야,  
지켜보는 느그들 말이야  
느그들도 솔직히  
답답하지 않냐?  
엉?

높으신 분들이 말이야, 나한테  
이딴 조우래기들만 보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오도르(O'dore)**

링 위의 빌런  
폭통이라 불리우는 자

우-우-  
노잼이다!

와-

웅소, 웅소!

와-

제대로 된 히어로  
데려와!

오도르  
최고다아앗!!!



자, 조용!!  
이제  
'클라이맥스'다

크구구구구...

씨익

엄마 젖이나  
더 먹고 다시 오거라

탁 탁 탁 탁

**엄마 찢이나  
더 먹고 다시 오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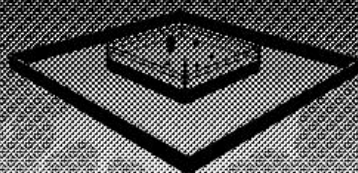
타







조용~




.....그래,

이건 좀 재밋구만

넌 뭐냐,  
애송아





**영광입니다, 선배님!!  
인사 하게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킬러 웨일',  
새겨두십쇼!!**







잘랐냐,  
멍멍 친구!

헉, 오, 오,  
오도르 선배님?!

왜 여기 오셨어요??

왠마, 니 진짜  
기억안나냐?

어.. 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니 히어로 데뷔  
축하파티 하고  
애프터로 나랑  
질펀하게  
한 판 뒤풀었잖냐!

그, 그럼,  
진짜 된거였구나..  
히어로!

잠깐,  
저희 어젯밤  
원나잇 했 다후요?

했는데?



...이런 썩이X





세 달 후에  
바로 데뷔를 할 거라고요?!



좀 빠르죠?  
적어도 1년 동안은  
트레이닝을 거치는 게  
보통이니까요

예에  
너무 빠르네요

그, 그곳  
제가 아는  
그곳인가요?!

자, 일단  
'웨일 스튜디오'로  
이동할까요?

가면서  
차근차근  
이야기하죠

오~  
알고 계신가요?

그럼요!!

그럼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회사 규정상 한 번은  
꼭 설명을  
해야 하네요

**무무**

**드래곤 후르츠 컴퍼니 직원  
솔피의 직속 에이전시**



약 50년 전,  
수퍼 빌런이 등장했지만  
수퍼 히어로들 덕분에  
세상은 곧 빠르게  
안정됐어요

하지만 그만큼  
수퍼 히어로들도  
빠르게 사라져 갔죠

빌런들이  
박멸됐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수퍼 히어로 '빅6' 중  
한 명이었던  
'범고래 오스카'가

프로레슬링과  
능력자들을 접목시킨  
'히어로 쇼'를  
창안해내셨죠

그분의 활약으로  
쇼는 대박을 쳤고  
은퇴한 히어로분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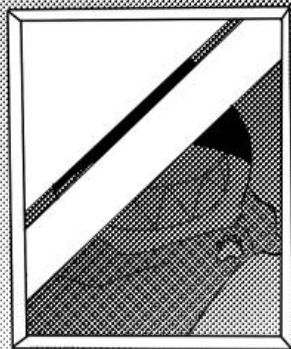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게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처음으로  
'수퍼 히어로'를  
육성해내신 곳이  
바로-













어렸을 때  
그를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쇼가 있던 날 밤,  
어떻게든 실물을  
만나고 싶어서  
몰래 대기실 앞에  
숨어있었죠

진짜 운이  
좋으셨군요  
어떻게요?



그러다가  
오스카 씨랑  
딱 마주쳐서  
아이제 혼나겠구나  
싶었는데

그분은 저랑  
놀아주셨어요  
히어로 쇼도  
제쳐두고서..



...그리고 다음 날,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봤죠



음

아직도 뭔가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런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재직

재직

뭐, 솔피 씨는  
잘못한 게 없-

우오오오오오!!!!

이 몸, 등장!!

우와아아악

탁

탁

탁



너구나, 신입!!  
아파 반갑다잉!!

하하  
제 담당 히어로니까  
주의해주실래요?  
오도르 씨?

음, 체,  
체취가 강렬해..

예이 예이,  
오래간만에  
신입이라  
흥분했수다

요새는 밖에서  
슈트 입고  
날아다니는 게 대세라서  
우리 신입이 희귀해  
알겠니, 멍멍 친구?

멍멍 친구?

하하하  
알겠으니까  
작작 하시라구요  
푼수 도마뱀 양반아



예~이 예~이,  
애들아 다 나와!  
신입 받아라~~~

빠드득





안녕 이쁜아  
이름이 뭐야?

웅성

와~~  
이게 얼마만의 신입이야  
크으 짜릿하구만

버, 범솔피  
라고합니다

웅성

야 이놈들아  
애 졸았다 졸았어  
냄새나는 근육덩어리들이  
둘러싸고 뭐하는 짓이야

웅성

사실 그래서  
좋긴 한데..

어색하면 우리 같이  
운동할래?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내가 도와줄게

하하하 미안, 신입  
우리 진짜 오랜만에  
뉴페이스가 들어온거라서  
다들 흥분하는거야

어이 뉴비,  
시그니처 무브 있냐?  
내가 고안중인게 있는데  
특별히 알려줄까?



자자, 그만, 그만!  
여러분 흥분하신건 알겠는데  
아직 얘기가 다 안 끝나서요  
그런건 내일부터.  
알겠죠?

자, 갑시다  
솔피씨

그래! 내가 먼저  
들고 박을거니까  
다들 순서나  
기다리라고  
하하하하!

하하하  
그래 잘났다  
반장!

내일 봐 신입♥!  
깨끗히 씻고와~

두근

두근

오도르씨,  
스튜디오 반장이면  
제대로 통솔 좀  
해주실래요?

으득득

에이예이,  
알겠수다

아, 그래요  
오도르씨도  
따라오세요  
마침 잘됐네요

오도르씨가  
트레이너 역할도  
해주셔야겠어요

앵? 빅비는  
싫으답니까?  
뭐냐야 좋지만

저기아까부터  
묻고싶었던게  
있는데요..

아, 죄송해요 솔피씨  
상황이 이제야  
정리됐으니.. 뭔가요?

히어로로  
데뷔하는게  
맞는거죠?

혹시  
악역레슬러  
인가요..?



솔피씨는  
범고래 오스카를  
좋아하죠?

네  
여전히요

저희는 수 년 전부터  
이 프로젝트를  
고안했어요  
범고래 오스카의  
뜻을 이을,

새로운 아이콘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해왔죠



압소사  
설마..



솔피씨는  
이제부터  
수퍼히어로로서,

범고래 오스카의  
뒤를 잇는  
후계자로서,

그리고  
드래곤 후르츠의  
새로운  
'아이콘'으로서



수퍼히어로  
'킬러웨일'이  
되실 겁니다



대애애애애박이구만  
애가 뭐 그렇게 특별한 인물이-



... 겠제 물론



내가..  
오스카씨의..

잠깐,  
'저희'라는 말은  
혹시..

후후 꽤  
눈치가 있으시군요

소개하겠습니다  
이쪽은 저희  
드래곤후르츠 컴퍼니의  
부사장이자

'킬러웨일 프로젝트'의  
책임자, 그리고  
수퍼히어로  
탐티어중 한분이신

'더 타이런트'  
나린씨입니다

와 씨

개쩌  
ㄴ다아아아



...재야?  
새파랗게  
어린놈이잖아



아, 좀  
조용히 말하십시오!  
들리겠습니다!

쑥덕

젠 원데  
선배들 다 제치고  
오자마자  
푸시를 받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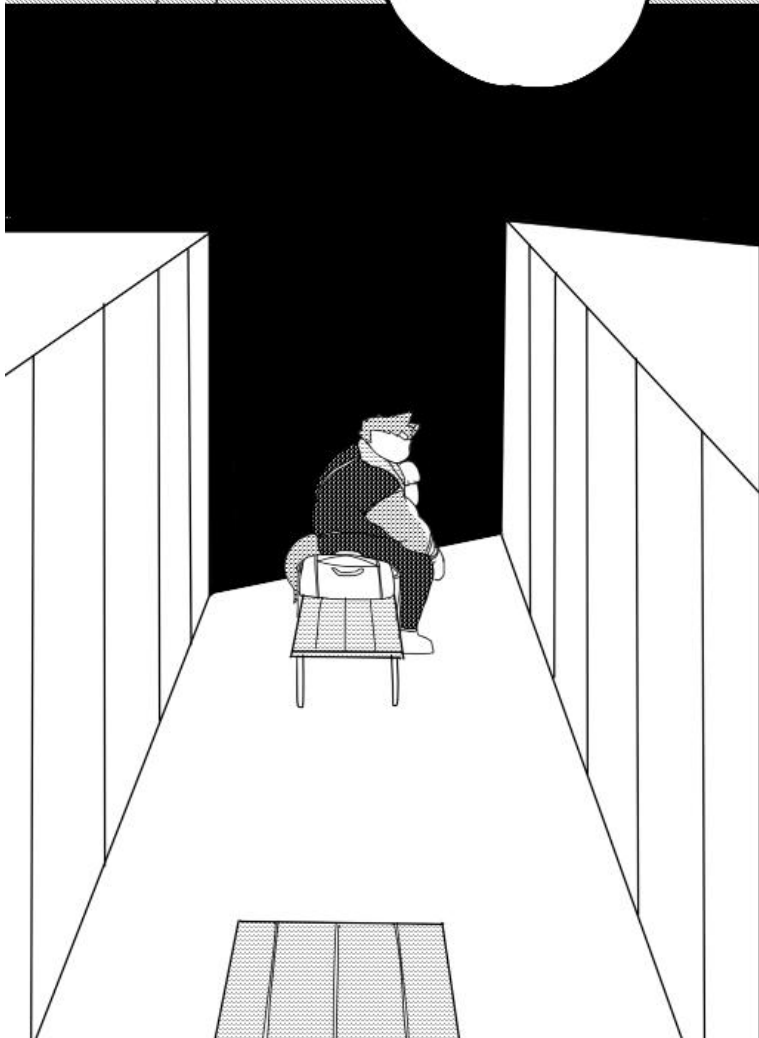
쑥덕

낙하산이겠지  
뭐

누가 말해줬는데,  
회사 이사장이랑  
원조교제를 한대

남창이네?

카카



그런적 없는데..





신경쓰지마,  
신경쓰지마!  
점마들 질투하는거니까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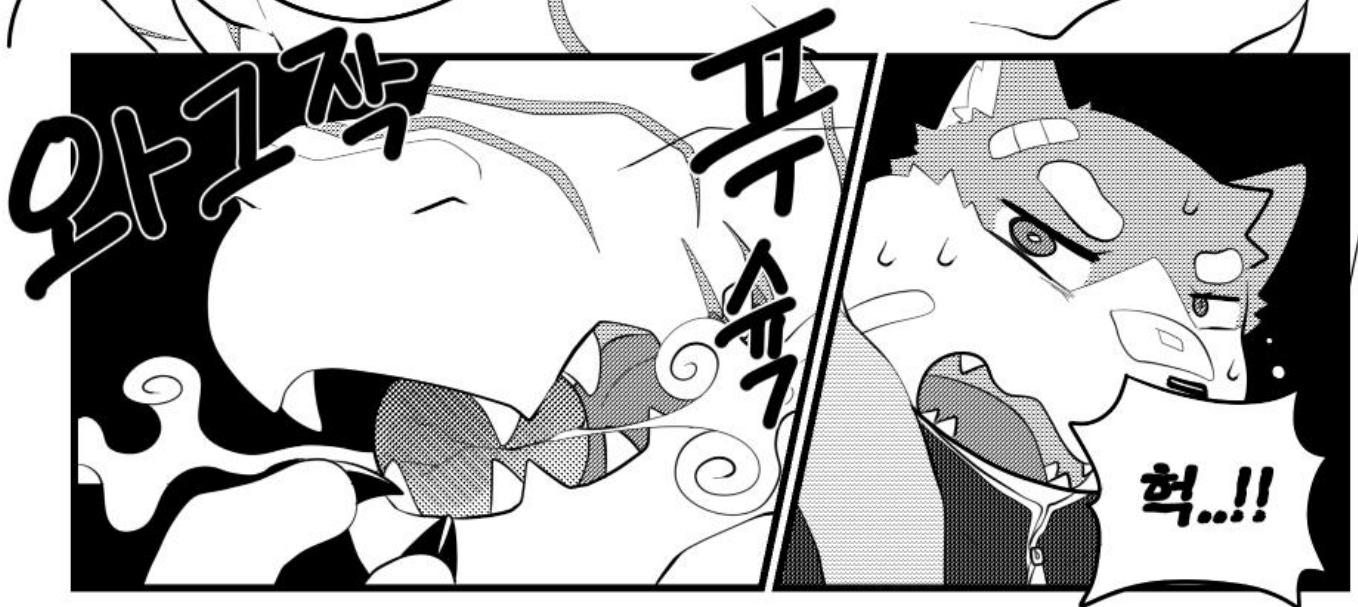
아~ 트레이너님 땀이  
제 몸에 다 묻었잖아요

잘됐네  
같이 씻을까?

어차피 씻을거면서 뭘~









아아아아  
어찌지 어떡하지

아니 그러니까  
말은 끝까지 듣지 좀

혹시 누가 듣고  
들어오기라도 하면  
별로 뒤가 좋지 않을텐데



후 좋아  
다행히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럼 남은 문제는  
오도르씨의 발정  
해소인데..

그즈즈즈..~

허억..!

하아..

하아..

등에 닿는  
감촉만으로 알겠어..!  
몸집만큼이나  
엄청난 대물이잖아!!

뜨겁고 탄력적인  
박동이 그대로 느껴져



하아~

젠장.. 노린건 아니지만,  
어차피 해소하지 않으면  
'매혹'된 발정은 풀리지 않아

드들썩

하아~

드들썩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여기서 흔들어댔다간  
뒷처리가 난감할테니..

트레이너님,  
샤워실로 갑니까요?

개썰떡

개썰떡

과연내가저대물을..  
감당할수있을까?



하아..

하아..

하아..♥

이아저씨의  
육봉..

냉  
냉  
냉

하아..♥

쭉쭉

아무래도  
'해방'이라는 능력때문에  
무지막지하게 커진거겠지?





하작

하작

혀도 엄청 크고  
부드럽다

아저씨 음탕한 혀를  
가지고 있네

발정나게 하는  
아저씨야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

아  
아  
아

확 내가  
따먹을까?

쭈쭈  
쭈쭈

쭈쭈

쭈쭈

음... 쭈쭈

음... 쭈쭈

원래 거구의 떡대가  
앙앙거리는 맛이 대꿀맛이지

일단 한발 뺏게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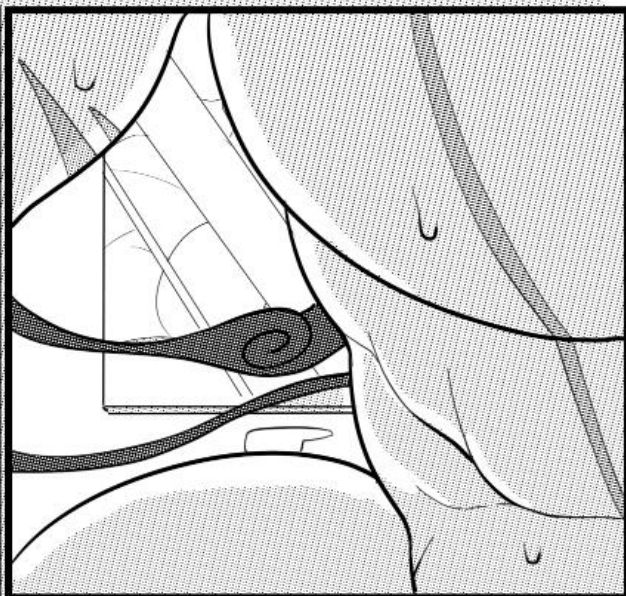
생각해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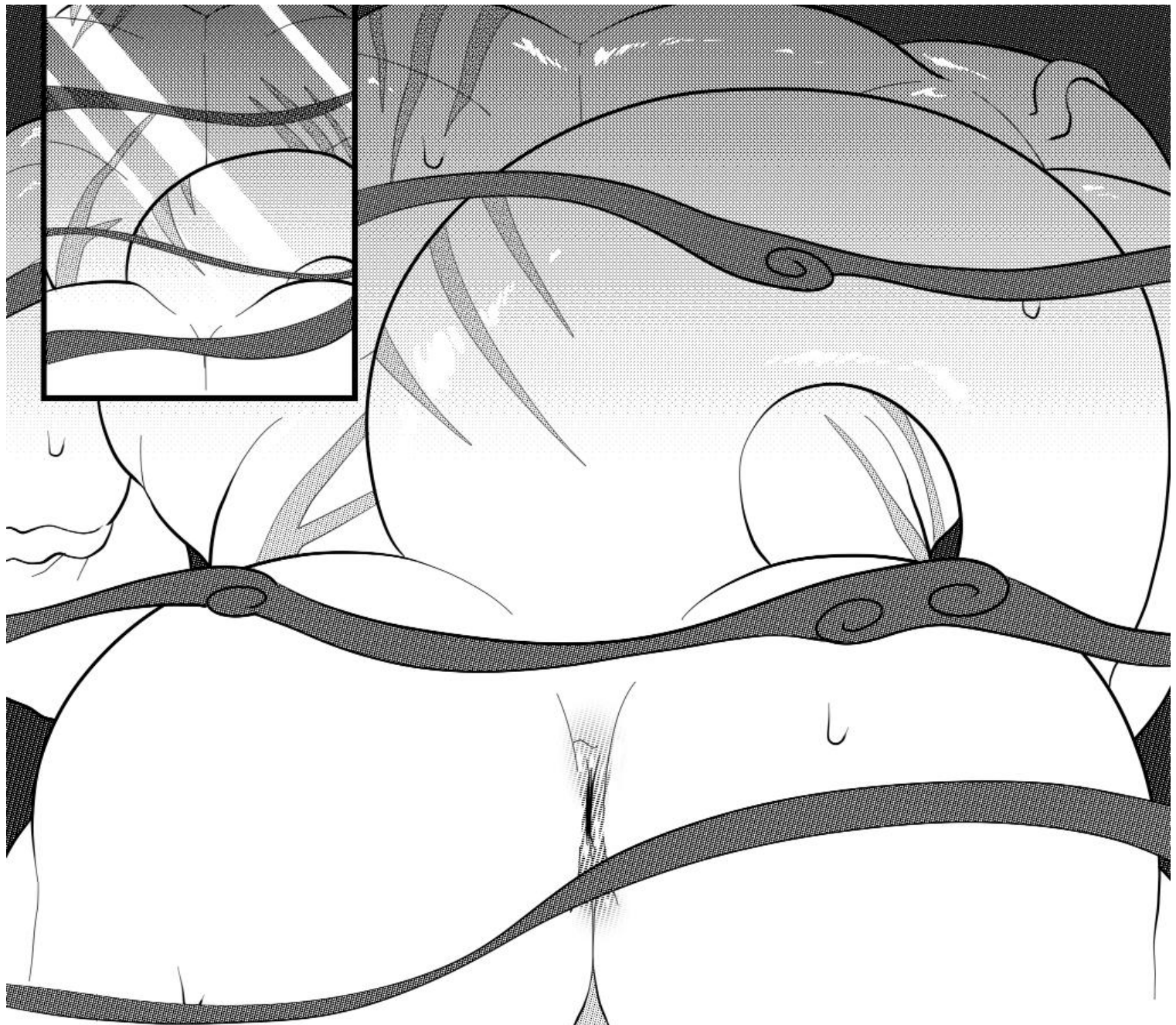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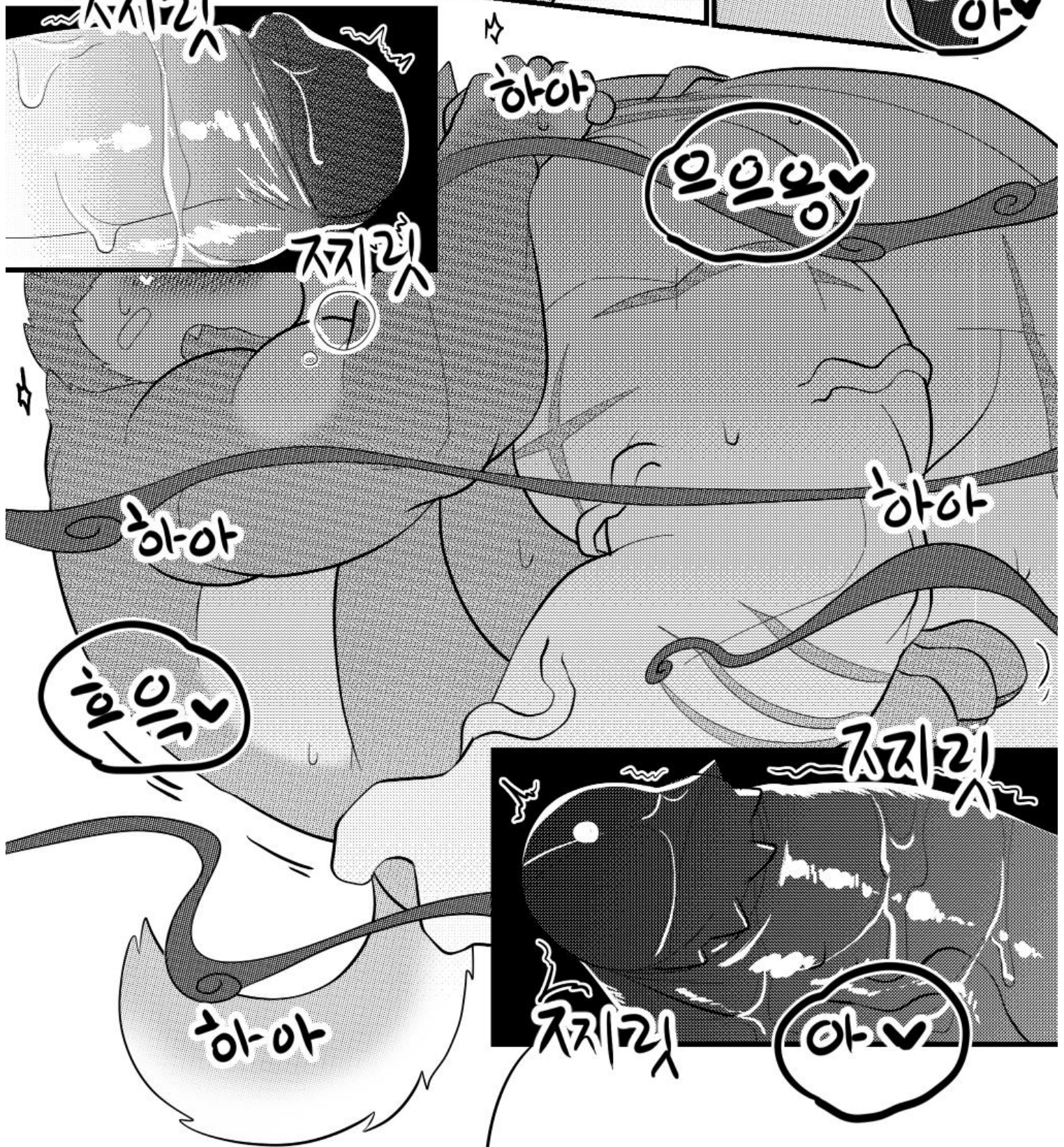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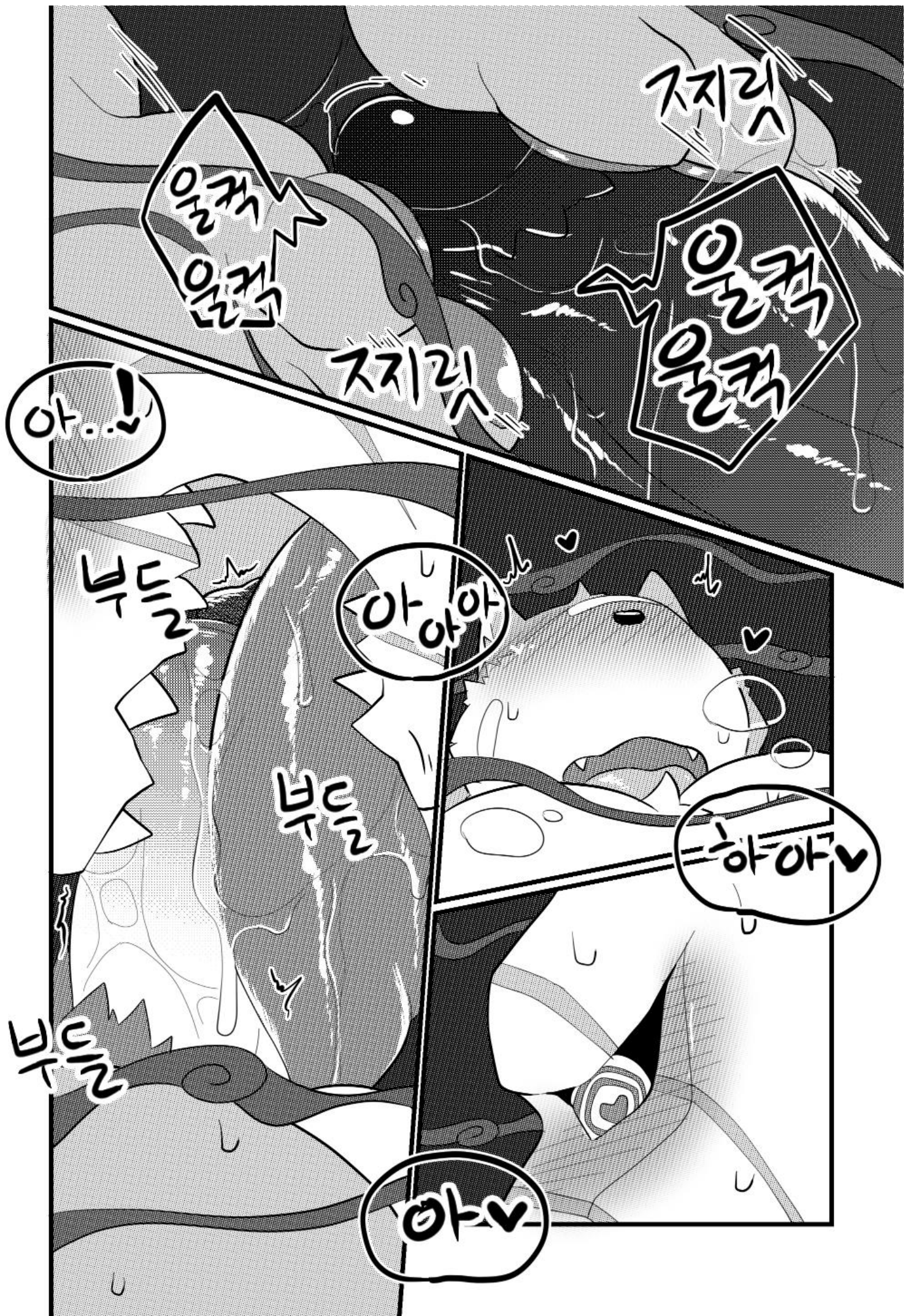












지리릭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지리릭

아..!

부드

아아아

부드

아아

부드

아





하아..

하아..

으으 완전 홍수났네..

몸이 크다보니  
정액도 바가지로  
나오는건가



..역시 사정 한번으론  
어림도 없군





하긴 삼입 없이  
끝날거라  
생각도  
안했으니까

맛 좀  
보겠습니다  
트레이너님

부웅

부웅

부웅

!!?



어라?

분명 뒤를 대라고  
명령했을텐데?



아~~  
또 매혹 조절에  
실패했나봐~~

나도 탐  
하고 싶었는데~~

힘으로  
제압할 수도  
없고~~

아니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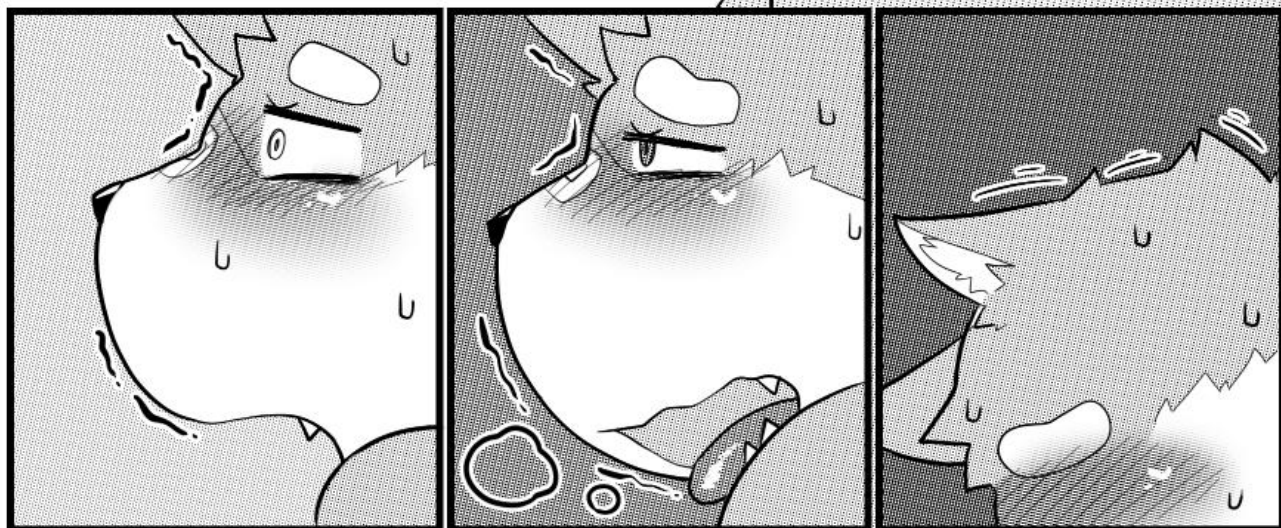
아니

현

아..안돼!

그렇게  
큰 건 무리라고..!!

부릉부릉





어라..?

생각보다 받을 만 한데?

엄청 물컹하고 부드러워

부드

부드

하이..

하이..

슬라임에 따먹히는 것 같아

오도르형..

부드

너무 좋아♡

부드







아! 아아

포

아아

포

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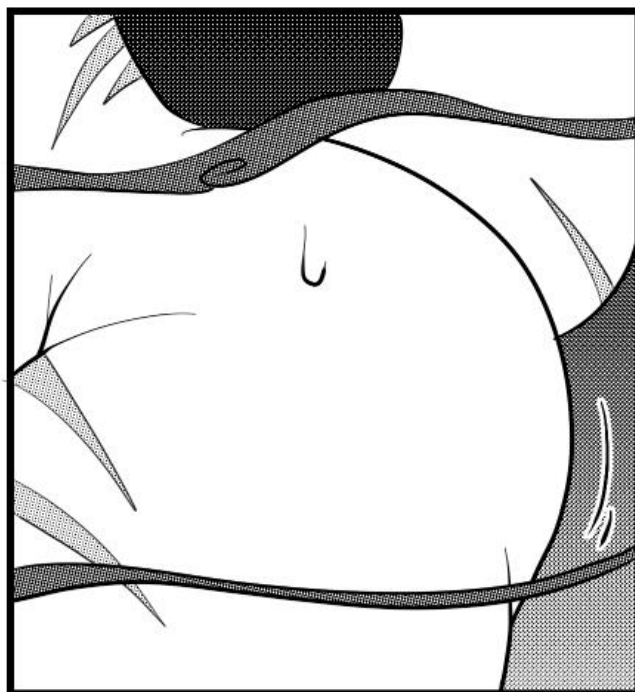
포

포

아아











..그래서,  
어찌저찌 뒤통수하고  
택시 태워서  
모텔 보내고  
난 집으로 돌아왔어

흐~음  
너바텀했구나?

그렇게  
티나?

엄청 티나거든 멍청아  
아주 털결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얼마나 정기를  
빨아먹은거야

아니 뭐..  
서로서로 몇 발씩  
뽑아내긴 했지  
한 5~6번 정도

복상사 안한게  
다행이네



안했어~  
나 못 믿는거야?

아니  
그건 아닌데..

혹시나 하는건데  
치프한테  
말 안했지?

들키면  
계약 위반으로  
해고당하니까

애초에 보통은  
이중계약을  
안한다구 바보야

**뭘 했다고,  
이쁜이들?**

아 어 그제-  
치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으응?  
저번주에  
출근했으니  
일주일밖에  
안됐는데?

뭐랄까  
마치 몇 달동안  
못 본 느낌이라서요

그래?  
그거 기묘하군

미안한데,  
오늘은 내가 급히  
누굴 만나야해서  
어디 좀 가 봐야 하거든

오늘 상대할  
히어로와 장소는  
특으로 보내놓을테니  
잘 찾아가라구

알아서  
잘 할 수 있지?  
이제 익숙하잖아

네에  
물론이죠



범아  
나 궁금한게 있는데

응?







하아..

그치만 이 왜감을  
멈추기가 쉽지 않은걸

하아..

찌익

윽..

으윽..

찌익

하아..

뽕 뽕

하아~

하아~



오늘 일정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애프터 가실 생각  
있으세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맛볼 수 있는데

하아~

푹

아아~

흐앙~

푹

하아~

아앙~

푹

하아~

어떻게 그만두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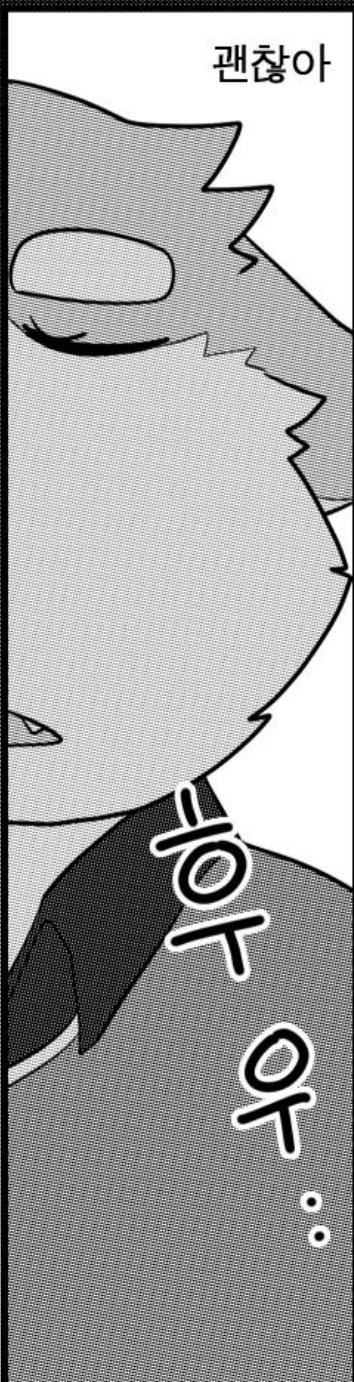


과  
아

괜찮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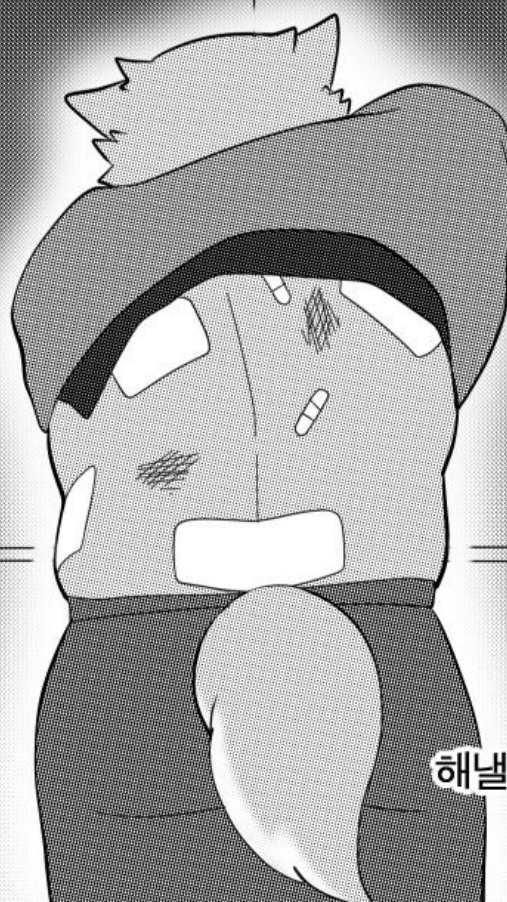
걱정 돼



괜찮아

아  
아  
...

괜찮을거야



해낼 수 있을거야




















여보세요?

다행히  
잘 마무리 됐어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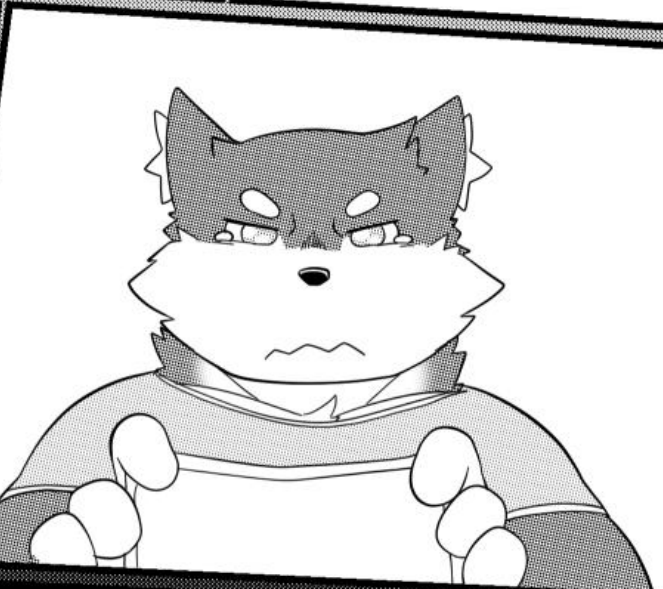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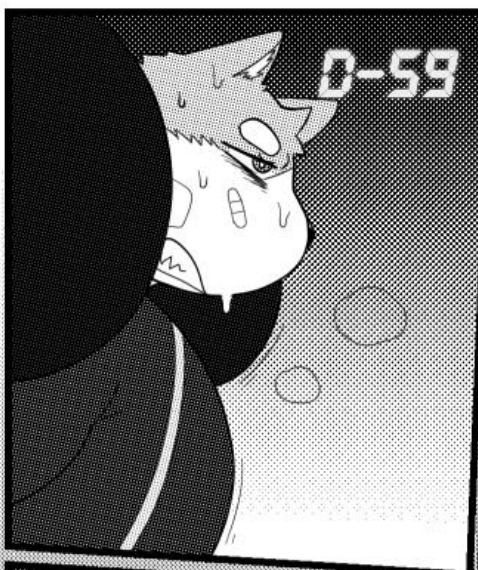
나한테도  
가끔은 들을  
보러오시는게  
어때요?

전 됐습니다  
일이 바쁩니다

첫번째  
직속 히어로인데  
궁금하지도 않네요?

...일리 있군요,  
조만간 꼭.

어휴 알았어요.  
다음에 또 연락할게요







긴장되냐,  
멍멍 친구?

네, 네넵!




괜찮아 몇번이고  
연습해봤으니까,  
잘할거다



자~ 그럼  
이따보자구

이따  
뵙겠습니다!





후우..  
슬슬 갈까

자, 조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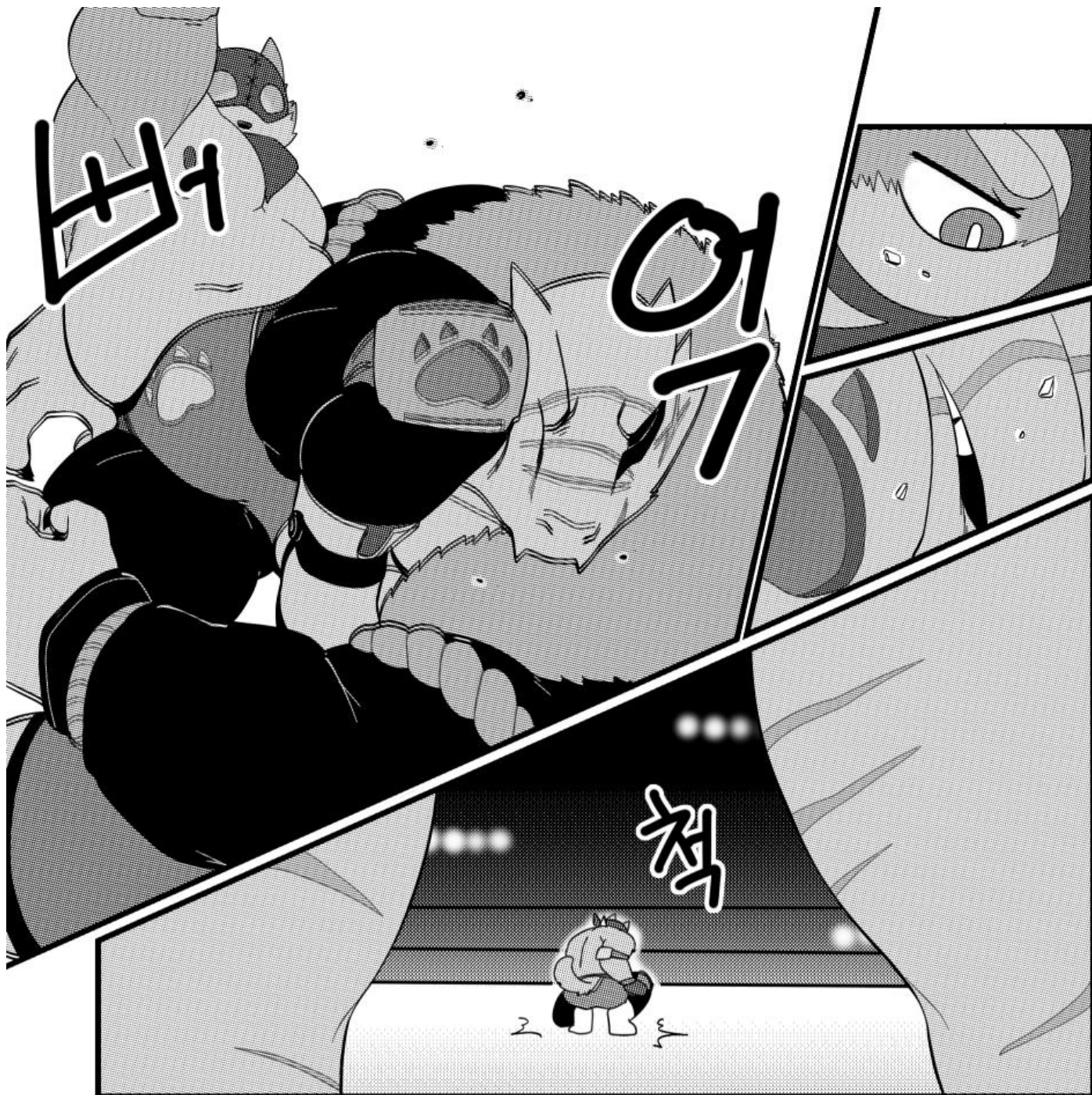
타 타

엄마 젖이나  
더 먹고 다시 오거라

이제  
'클라이맥스'다

두 두 두 두 두 두 두





킬러 웨일?  
아~ 그래

낙하산으로  
내려온 놈이  
너냐?

제 이름은  
'킬러 웨일'  
새겨두십쇼!!

엇..?

갑자기  
툭 튀어나오길래  
뭐 대단한 놈인가  
했더니..

너 요새 논란이  
아주 많던데?  
이유 없는  
푸시 받는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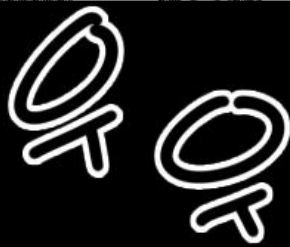
애송아,  
검증되지 않은 니가  
쟁쟁한 히어로들을  
제쳐두고  
최강의 빌런인 나와  
마주해야하는 이유가  
뭐냐? 엉?

대답해봐

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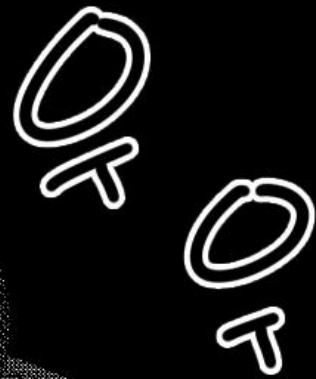
아





너 뭐냐!  
필요없다!

낙하산  
쪽팔리지도 않냐!  
그렇게 해서라도  
히어로 하고싶냐!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하아..

하아..

하아..

멍멍 친구,  
내 눈 똑바로 봐,



이곳은 너와 내가  
만들어가는 무대야


당당하게 받아쳐

조롱과 야유를  
극복해라!

이 정도 짬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야해!







누구도!!

내 노력을  
알지도 못하면서  
비웃을 자격은  
없어!!

내가 정말  
이곳에 설 실력이  
안되는지는!!

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나  
판단하라고!!

당신도  
마찬가지야

내일 신문에  
굴욕적인 사진이  
실리는걸  
각오하라고

당신은 오늘  
첫 경기에서는  
신인에게 K.O를  
당할거니까

하

크!!

하하하하하하!!!

그래그래  
패기 하나는  
마음에 드는구만!!

하

하

하!!


그런 말을 들은 이상  
설렁설렁 봐주면  
체면이  
말이 아니겠지!!!!

우웩!!!

부둥

부둥





모든 힘을  
해방해  
맛봐주마

그럼 이제  
어떻게 날 K.이킬지  
보여줄 차례로군  
애송이 친구

한 방에  
나가 떨어지면  
재미없을 줄 알아

여기예요 여기!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같이 보자고 하셨으면서!



미안미안,  
부모님이  
해외 여행중인데  
술피에 대해  
매우 궁금해하셔서  
통화하느라고

..근데  
그의상은 뭐야?



와아아

아앗 저, 저어  
사실 오도르 광팬인데  
술피는 제 절친이고..  
둘 다 응원하려구..

하하  
귀엽네

와아아

그래서, 술피는  
잘 하고 있어?

와아

와아

음.. 그게요..





저저영



개수작  
부리지 마라!!  
언제까지고  
버티기만  
할 수 있을것  
같으냐!!

간만에  
재미좀 볼까  
했더니만  
시시해서  
화가난다!!





와아아  
귀찮....



숨죽먹이네  
뭐..



이제 끝내!!



아직이다.. 아직이야..

벙

처! 형!

처! 형!

처! 형!

와아아

키, 킬러 웨일  
힘내라! 와아악!!

와아아

화이팅  
동생~

와아







크래 준비됐구나



날  
도발한  
벌이다  
애송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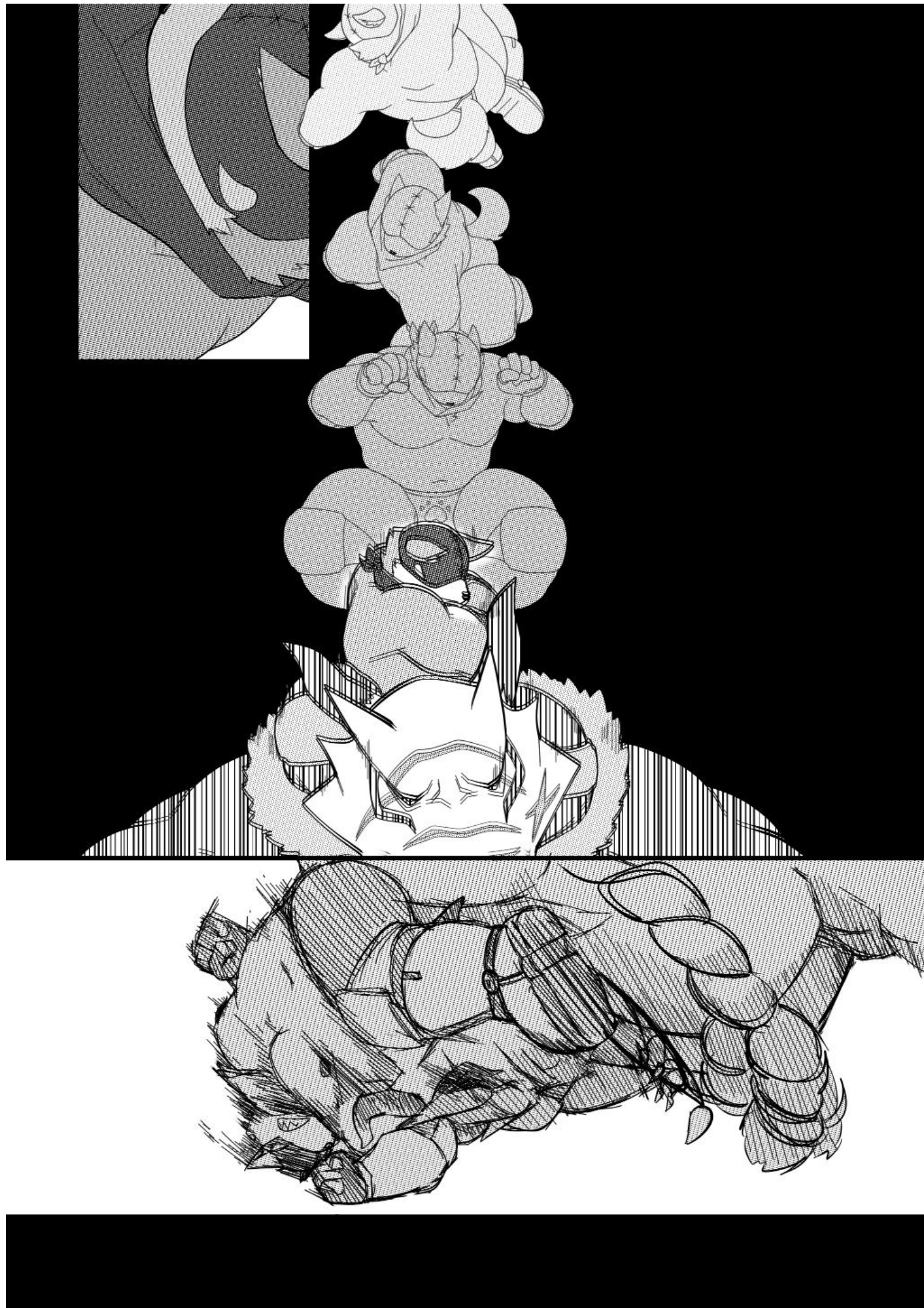
지금이야!!  
멍멍 친구!!



**아작**  
**내주마**  
**!!!!!!!!!!**









쿵

와아

봤어?!  
봤어!?

저게  
가능해??

어버..어버버버버..

와아아아 와아아아

와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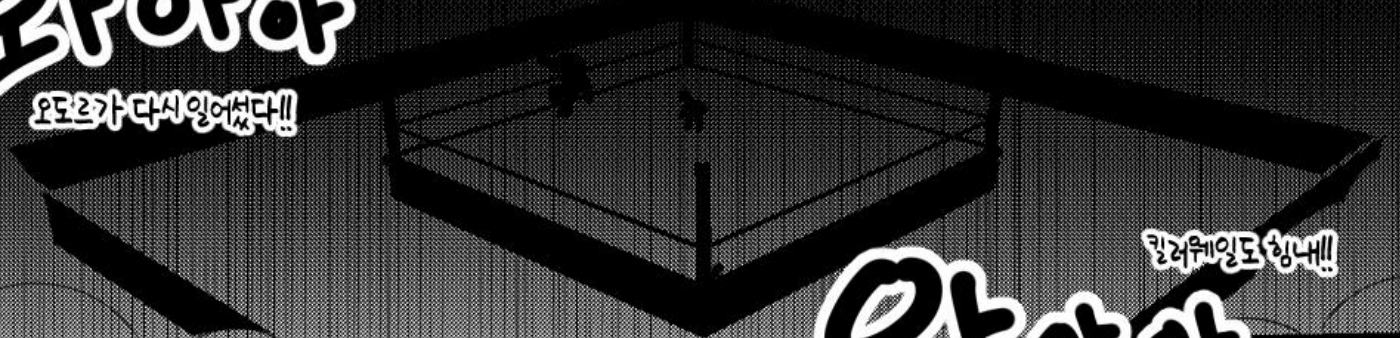
이열~  
꽤 하는데~





와아아

오도르가 다시 일어났다!!



킬러웨이도 힘내!!

와아아





..뭔가 썩썩하구만..  
어제까지만 해도  
투명인간 취급하더니..

내 데뷔 축하파티만  
아니었으면 강  
집에 가는 건데

여기서  
뭐하세요?

...무무 씨?!

많이  
달라 보이나요?

무무 씨  
맞아요?!







오늘 데뷔전 잘 봤습니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셨더군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게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네!



여~ 멍멍 친구  
여겼었구만!

..앗  
형도 있네!

음 오도넬  
너도 오늘  
고생 많았다



에이  
멍멍 친구가  
고생이 많았지~

멍멍 친구..?

형..?

아, 몰랐겠구만!

우린 사촌지간이야!  
원래 이 아저씨 혼자 살았는데,  
별장까지 딸려있는 거대한 저택을  
혼자 쓰면 쓸쓸하잖나~  
내가 좀 덜어주고 있다는 말씀!

그럼 오도르 씨가 말한  
'내 저택에서 파티'에서의  
저택은..

사실  
이 아저씨의 집이지!

...잠깐,  
파티라고?  
처음 듣는데?

샤아

앗.. 히, 히히  
내가 말  
안 했나..?

오도넬 이스메니우스...

멍멍 친구, 튀자!!

**미안!!!!!!**

저도요?!  
왜요?!

**허락은  
얼마나 첩이 들어야  
받으러 올거냐!!!!!!**





크-하하하하하!  
들켰구만 그래!  
혼나겠구만!

본인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  
괜찮아 괜찮아  
저 아저씨 맨날 바쁘니까  
집에 오는 날이  
특이한 날이거든!

사실상  
내 집이나  
다를 바 없다고!

그래서,  
소감이 어때?  
이제 너도  
정식 히어로인데

글쎄요, 좀 씁쓸하네요  
다들 어제까지만 해도  
없는 사람 취급하더니  
갑자기 확 달라지고..

꼬꼬마들이  
다 그렇지 뭐~  
사람답잖냐

뭐 그리고  
아마 진심으로  
신경 쓰였던 녀석들도  
있었을 거다  
원래 분위기란 게  
거스르기 힘든  
법이니까


그렇다고 기분이  
안좋은게 가시지는  
않겠지만 말야..

어쩌겠나  
그냥 넘겨야지


아저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나보네요








싫으면 뭐..  
어쩔 수 없고..



에~이  
내가 무슨 별  
귀신 뺨다구  
까먹는 소리를  
다 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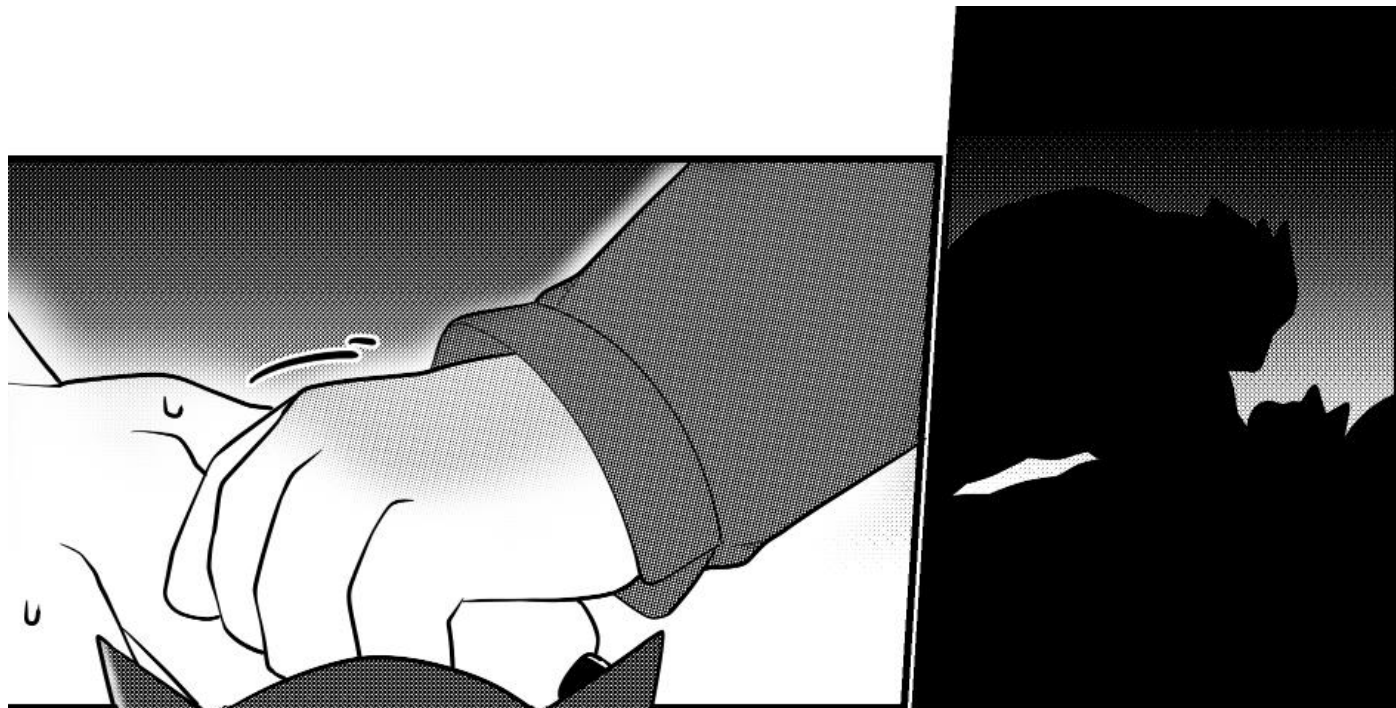
잊어 잊어!  
그냥 마시자구!

\*\*\*\*\*

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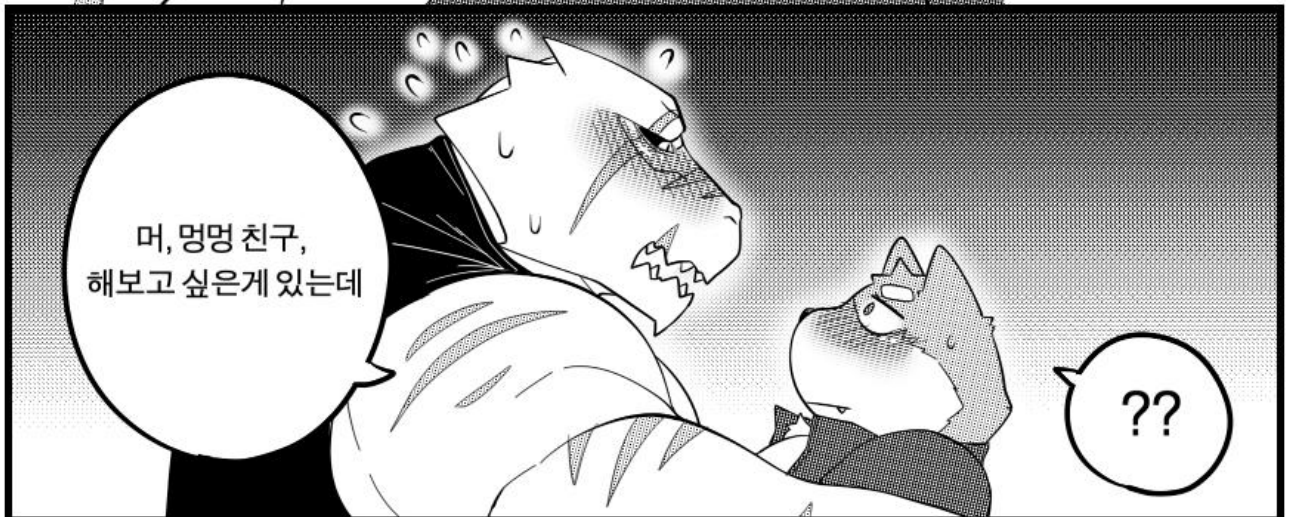














내 슬릿에 박아주지 않겠나?

예?!

아, 아니 갑자기  
그러셔도..

게다가 너무 커서  
틈이 없을 것 같은데..

뿌드득

...

그건..  
이렇게 하면  
될거야

뿌드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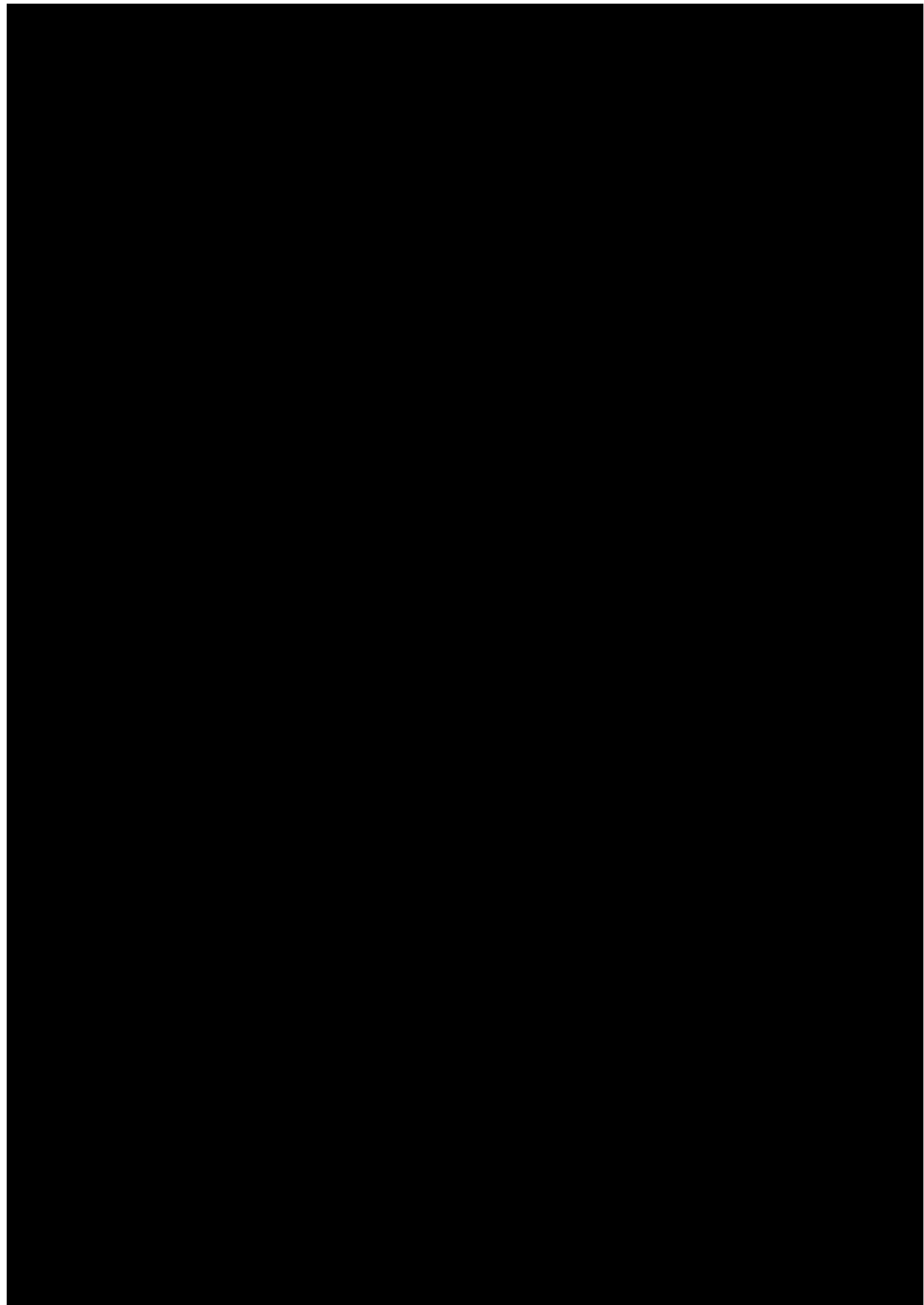




어때, 이정도면.. 괜찮겠지?  
얼마든지 쑤셔대도 사정해도  
거뜰할테니 말이야

질척

질척







전복..

하아..

아..  
조여온다♡

전복..

헤윅.. 헤..

헉..!!

푹

아♡

미치겠다  
느낌..

전복..

아!

푹

전복..

하아♡

푹

아!!

푹

우리 각자  
얼마나 썼지?

글쎄요~  
제 구멍도  
아저씨 구멍도  
정액가득인 것만  
기억해요

하아

하아

그렇게 싸고도  
아직도 뺏뺏한데?  
음란하구만~

하아

하아

아저씨 속이  
음탕하게 조여오니까  
서는건데요♡

아~이 흐흐 부끄럽게

꾸르럭

꾸르럭



펫!

그러니  
한 발 더 갑니다~

펫!

부룩

부룩

소, 속도 조절  
속도 조절!

펫!

하..♡  
좋아

안에 싸줘

히히히

자자 내 차례야  
내 차례!

헤헤..  
힘조절 하지 말고  
원하는대로 다뤄주기!







하얀작

쭈르르

쭈르르

헤헤..

이제 거부감 없이  
마구 핏으시네요

아앙~

냉큼

냉큼

으윽



슬슬 날이  
밝아 올텐데  
마지막으로 한번 더?

좋아요  
누가 박을까요?



당연히  
힘센 놈이 박지!



강제로  
박힐래요,  
자진해서  
엎드릴래요?



힘?

히임??



썩  
아아아아

꼬우면  
능력 가지고  
태어났어야지~



하이라이트는  
'한번도 안써서  
제일 조이는 부분'  
헌납하기!

억

퍼

악!

퍼

퍼

앗아안돼!!

거긴 처음이라고!!

아악.

아..아아!!

하아..  
역시 뜨겁게  
쫓여주는구만♡

진진

으악!

퍼







해 뜬다



zzz zzz

진짜  
밤새 했네..

zzz zzz



아무래도 블랙아웃이  
왔었나 보네

부갈이 아플 정도로  
했으니 그걸 만도 하지

...자기 아이돌이랑  
원나잇 한 사실을 알면  
키요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무섭군..

충 격  
(\*이미지)



저번에  
트레이너라고  
얼버부리길 잘했어



그래서,  
전부 기억은  
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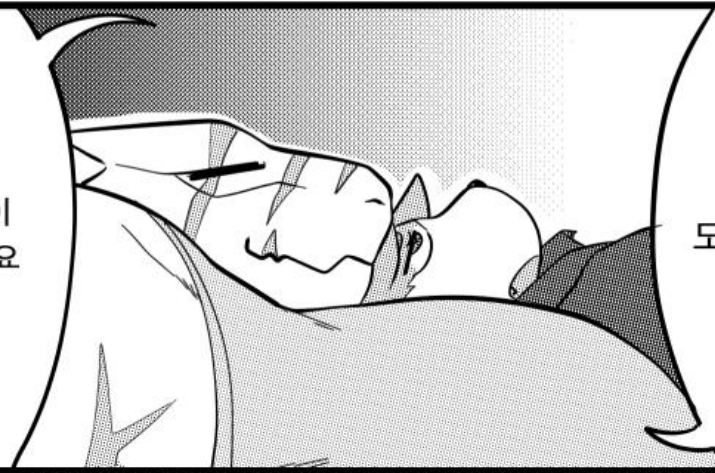
넵 아주  
세세하게  
다 떠오르네요

이야~ 우리말이야  
속궁합이기가 막혔어  
그치?

하하..

종족이 드래곤이라서  
무리 없이 주고받고  
한 것 같지만





드래곤들은 다  
하나같이 능력이  
강력한 것 같아요

아양, 그렇지?  
뭐, 난 어머니가  
도마뱀이지만 말이야,  
반쯤은 고귀한  
혈통이니까


드래곤들은  
능력의 근원이 되는 힘이  
정해져 있단 말이지

나의 경우에는  
순혈 드래곤이  
되고 싶다고  
열망하는 순간  
능력이 싹텃었지


그리고보니  
부사장님은  
능력이 뭐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탐낼 때' 능력이 개화한다고  
하더라고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릇이 커진다고 뭐라나



앵? 몰라?!  
티비에서 방영도  
하는데??



저는 친구가 즐겨봐서  
같이 보는거라  
솔직히 잘 몰라요



본인에게  
직접 듣는 건  
어떨까요?

아, 무무 씨-

-랑  
부사장님?!

구웬에엑

뭐, 지금은  
두통이 있으신 것 같아서  
나중에 하시는 게  
좋아요

글쎄요?  
과연 누가 갑자기  
사라진 파티의 주인공 대신  
수승을 했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앗, 그게..  
..죄송합니다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음주 배틀에 데뷔를  
상품으로 거셔서  
다들 이기려고  
엄청나게 마셔댔어요

으으 토나와..

형님 괜찮아?

헉이이이익

너는 이따  
두고 보자 오도넬

네?!  
데뷔를?!













넵!!!!

나중에  
뵙겠습니다!!!!!!



방황하는 푸른 탐험 제3화

